

# 순천만정원박람회 개막 58일만에 관람객 400만명 돌파

목표 관람객 800만명 50% 달성  
입장권 판매 158억·매출 235억  
6~8월 폐장시간 밤 10시로 늦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두 달도 채 안돼 400만 관람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원박람회는 다음 달부터 석 달간 개장 시간을 한 시간 늘려 인기몰이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500만 관람객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개막 58일 만인 지난 28일 오후 12시 28분께 4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았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정원박람회의 목표 관람객은 800만명으로, 개막 두 달이 되기 전에 목표 50%를 달성했다. 10년 전 치른 정원박람회에서는 개막 176일 만에

400만명을 넘겼다. 정원박람회는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박람회 자체 매출은 지난 27일 기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입장권 판매액이 1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당·카페·편의점 등 식음 시설 48억원, 관람차·스카이큐브·정원드림호·가든스테이 등 29억원이 뒤를 이었다. 순천시는 전문 기관에 경제효과 분석을 의뢰했다. 정원박람회의 흥행이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의 자치단체, 기관·단체, 연구소, 지방의회 등 170여 곳이 박람회를 답사하기도 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드는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석 달간 폐장 시간을 기존 밤 9시부터 밤 10시로 한 시간 늦춘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름 휴가를 정원에서 만끽할 수 있는 '가든캉스(가든+바캉스)'를 주제로 '여름 정원' 만들기엔 힘을 쏟

고 있다. 무더위에 즐기는 '빙하정원'과 '개울길 광장', '정원드림호' 등을 내세워 피서객을 끌어들이는 방침이다. 숙박형 체험 '가든스테이-설랑개'는 8월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예약을 오는 6월1일 0시부터 받는다. 이 밖에도 각종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물 위의 정원' 등 차별점을 둔 '빅 체인지 10'가 관람객을 맞는다. 순천시는 주말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순천 시민들은 차량 2부제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로 여름 휴가를 계획이나 바다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가장 고급스러운 휴양지는 정원"이라며 "지금껏 없었던 휴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400만 관람객을 돌파한 지난 28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순천시 제공>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육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 일본 자위대 함정, 육일기 게양하고 부산 입항

31일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참가  
국방부 "군대 상징 깃발 국제적 관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육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29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마기리함은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육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입상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취 국제연합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한국이 육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행사가 불참했을 정도

로 이는 민감한 이슈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다. 이틀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함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시행되는 '이스턴 엔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의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경 5002함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한다. /연합뉴스

## 6월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 40개월만의 '엔데믹'

'7일 격리 의무→5일 권고' 전환  
입소형 시설 외 마스크 해제  
백신·치료제 등 지원책은 유지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위키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일부에선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만명대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의무가 사라진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몸이 아픈 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애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따라서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등은 모두 해제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도 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

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책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하지만 하루 평균 광우·전남 500~1000명대 등 전국적으로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의무 등을 없애는 것은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아프면 쉬 수 있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며 "특히 심각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北 위성 발사 통보... 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웅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

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공인위성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이 기간 내에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개발이 자위권이라며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 발생알매각공고(2차재공고)

1. **입찰건명·발생토목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약 174,481㎥(자연상태 모암 기준) 단, 현장 사정에 따라 실제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총회량	연보통량	경매	비고
수량	㎥	174,481	174,481	174,481	직접입찰	직접입찰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주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 현장사무실)  
가. 현 장 설 명 회 : 2023년 06월 01일 14:00  
나. 입찰등록(입찰) : 2023년 06월 02일 14:00  
다. 개찰 일 시 : 2023년 06월 02일 14:00  
라. 낙찰자 선정 : 2023년 06월 03일 (낙찰자 개별통보)

3. **입찰방법** :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 1㎡당 원석대가 최고가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선정 방법에 의함)  
\*설계운반거리(L(=2.9km)를 초과하는 추가운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추가운반비용에 대한 단가는 건설공사 표준시정당가로 선정함.  
나. 입찰 참가 자격 : 1㎡당 결정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입찰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 입찰결과를 유효한다. 기존 입찰이 2회 유효(단독유효)함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1개사일 경우 해당업체와 수의시율을 진행

4. **계약금착수 및 환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임의계약의 경우  
1) 입찰공고일 현재 공채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산림공채채취업 또는 공채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업자로써, 현행법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번입장을 구비해 상시인원(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채 채취 및 공채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량 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공통사항  
1) 현장설명서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서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할 사업장(의정장 및 공채 생산시설)은 발파면 변경, 공채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관공에 위법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서 참조)  
가. 번입장(공채생산시설 및 야적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공채 채취 파쇄업 사업자 등록증 및 공채 파쇄 신고수리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사무실 가능)  
· 매 각 자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 (주)태영건설 (전남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358)  
· 기 타 문 의 : 시공사 (주)태영건설 061-454-5557  
감리단 (주)케이일티씨 061-454-5509

2023년 5월 30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목포) 제5공구 건설공사  
계약대리인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당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 월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경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전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인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장전군 도암면 만덕리 산110
- 분묘개장: 4기
- 분묘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 분묘의 처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 개장방법  
(a) 유연분묘 - 인고자와 협의 개장  
(b)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 연락처: 장전군도암면(안)만덕리 분묘관리사무소 935-49
- 안치기간: 봉안 후 10년
- 공고기간: 2023년 5월 30일 ~ 2023년 8월 29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신고 및 문의처: (주)전원부동산 010-8025-5078
- 신고시 구비서류: 인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본, 가원, 사실확인서 등
-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3년 5월 30일  
위공고인: 토지 소유주 (주)전원부동산 (010-8025-5078)

---

### 산행안내

6월3일(토)  
▲ 광주호산회 6월 3일(토) (육천 대청호 부소단약, 미르정원길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 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